

WTO 가입과 중국의 IT 산업

Entry of WTO and IT Industry in China

이성휘(S.H. Lee)

정보체계연구팀 연구원

정현수(H.S. Jung)

정보체계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지난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이는 과거 약 15년간 계속되어 온 중국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중국은 IT 산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중국을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IT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우리나라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국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장애 요인과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I. 도입

1. 중국 경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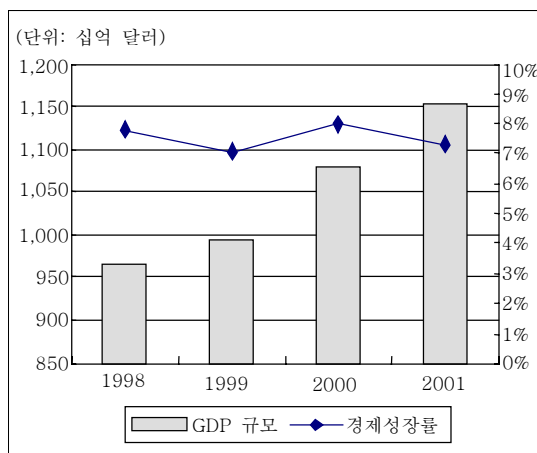
1992년의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나라의 제 3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 및 지하자원, 그리고 이미 13억을 넘어선 인구 등의 환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등소평에 의한 개방경제체제 전환 이후 중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과거 수년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다.

2001년 중국의 GDP는 2000년과 비교할 때 7.3%의 성장률을 보이며 1조 1,542억 달러(9조 5,800억 위안)를 기록하여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그림 1) 참조[1], [2].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와 환율을 유지한다면 2002~2003년에

는 프랑스를, 2005~2006년에는 영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넓은 내수시장이라는 특유의 강점 이외에도, 수출 성장이라는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99년에는 6.8%의 성장을 보였던 중국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01.
삼성경제연구소, 2002.(월드리포트 제51호)

(그림 1) 중국 GDP 규모 및 경제성장률

내수소매시장은 2000년 들어 9.7%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수출 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에 27.8%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총 2,492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 중국의 IT 산업 주변 환경

가. 중국의 IT 산업

지난 세기 말부터 전세계에 불어 닥친 인터넷과 IT 열풍 속에서도 중국은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민간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IT 분야에서 최소 4개 품목 이상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5위 내에 18개의 품목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3].

또한 IDC에 따르면, 2000년에 중국은 168억 8,000만 달러의 IT 시장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2) 참조[4].

이처럼 중국은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주요 지역들의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조심스럽지만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말까지, 중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태 지역 IT 시장의 23.6%의 점유율을 보이며 겨우 0.1%

의 차이로 호주에 이어 두번째로 커다란 시장규모를 보였다. 또한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는 중국이 아/태 지역 IT 시장의 39.7%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4].

나. “Go West” 캠페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넓은 내수시장을 최대 강점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중국은 심각한 내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역적인 개발 및 발전의 편차에서 비롯되는 문제로써, 이처럼 동서로 구분되는 경제 불균형은 장기적, 균형적 발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 서부지역은 중국 전체의 면적에서 5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면에서 살펴 보면 전체의 30% 미만인 2억 8,00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일인 당 소득도 중국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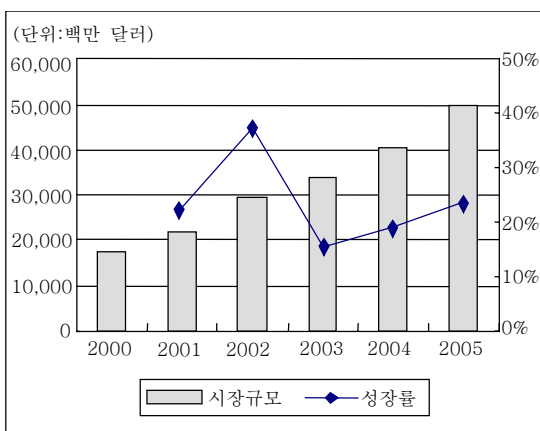
동부지역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그리고 광저우(廣州) 등의 2000년 IT 시장규모는 중국 전체의 74%인 119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청두(成都), 시안(西安), 그리고 선양(沈陽) 등 중국 중-서부 지역의 IT 시장은 전체의 24%에 그치고 있으며, 발전속도 면에서도 동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중국 정부는 “Go West Campaign”을 발표하여, 비교적 발전된 동부지역과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인 서부지역의 동등한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Go West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었다[5].

1) 1 단계(2000~2005): 개발 초기 단계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과 주요기구 구성 등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은 가시적인 개발 과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홍보 및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자료>: IDC, 2001.

(그림 2) 중국 IT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2) 2 단계(2006~2015): 대규모 개발 단계

서부지역의 자체적인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으로의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

3) 3 단계(2015~2050)

서부지역의 시장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여 서부지역 전체의 도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1년 3월, 중국 정부는 서부지역에 특별히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부 지역의 개발 정책을 전담하게 될 국가개발계획위원회(th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가 서부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초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Go West” 캠페인이 서부지역의 IT 분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계산해 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IT 산업 성장은 정부의 촉진정책의 규모나 서부지역으로의 투자전환속도, 그리고 서부지역의 전체적인 개발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현재 중국 정부의 IT 관련 산업으로의 투자 의지를 고려할 때, 이 캠페인은 서부지역의 IT 산업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중국의 WTO 가입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승인됨에 따라, 중국이 걸어온 WTO 가입의 여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6].

중국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리나라 1967년 가입)의 창설 당시 가맹국 중 하나였으나, 공산화와 함께 GATT를 탈퇴하게 되었다.

<표 1> 중국의 WTO 가입관련 연표

연도	내용
1948. 5.	대만(중국), GATT 가입
1950. 5.	중국 공산화로 GATT 탈퇴
1983. 10.	중국, GATT 업저버 자격 획득
1986. 7.	중국, GATT 가입 신청
1987. 3.	중국의 GATT 가입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1995. 1.	WTO 출범
1999. 11.	미중 양자간 협상 및 합의
2001. 6.	미중간 구체적 가입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
2001. 11.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승인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1.

이후 1985년, 중국은 WTO의 전신인 GATT에 원 가입국의 자격을 주장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로부터 십여 년의 노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1995년)한 WTO에 가입을 승인(2001. 11.) 받게 되었다(<표 1> 참조)[7].

II. 중국의 WTO 가입과 영향

중국은 과거 약 15년간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 WTO의 가입을 실현해 냈다. 이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쌓고 있던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경제논리에 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중국이라는 넓은 무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대해 이견은 거의 없어 보이며, 실제로 유선전화 및 이동통신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시장 등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 및 시장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1. 중국 내부에 미치는 영향

일반 제품의 생산과는 달리,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외국업체에 대해 관세나 쿼터제의 형태보다는 해당 국가 내의 규제를 통하여 진입장벽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 활동에 대한 규제가 오로지 국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거의 대부분 강력한 무역장벽을 형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업체가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대한 규제 및 제도적인 틀은 보수적이고 저항적이며 적대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다[8].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으로 산업규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기회를 안겨 주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WTO 가입은 대외경제 활성화와 GDP 성장 등 긍정적 요인을 제공함과 더불어, 수입 증가와 서비스 산업의 충격, 경쟁력이 약한 국영기업의 파산 가능성 등 부정적인 요인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 요소로는 우선, 중장기적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효율 향상을 들 수 있다.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이 대외교역 및 외자유치 확대 효과로 이어져, 매년 GDP 0.5%~3%선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번째로는 수입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대외교역이 활발해 질 것이며 2005년 교역규모는 6,00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990년대 초반 40%에서 2001년 11월 현재 15.3%선으로 인하됐고 2005년까지 공산품과 농산품이 각각 8.9%와 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2],[7].

WTO 가입 후 중국은 하이테크 기술 및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여건이 개선될 전망으로, 중국의 낙후된 정보통신, 자동차, 기계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확대로 부진한 금융부문 개혁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및 중소기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 개방에서 야기되는 것이며, 외국상품과 서비스업의 대량유입으로 이러한 단기적 개방에 따른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 보험 등 금융부문과 통신 등 종래 국가 보

호막에 싸여있던 업종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 구조조정 부진으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된 부실 국영기업의 대거 파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과정을 경과하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업 및 경제체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 국유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중국 정부의 거시 경제 운용이 전반적으로 WTO가 요구하는 기본방향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증권, 외환시장 개방으로 국제상품시장 및 국제자본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환경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며, 이로써 외국업체의 중국진출이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쉬워지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WTO와의 협약에서, 중국은 통신관련 산업의 시장 개방에 대해 향후 몇 년의 시간을 확보하였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의 통신관련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단계는 (그림 3)과 같다(가입일 기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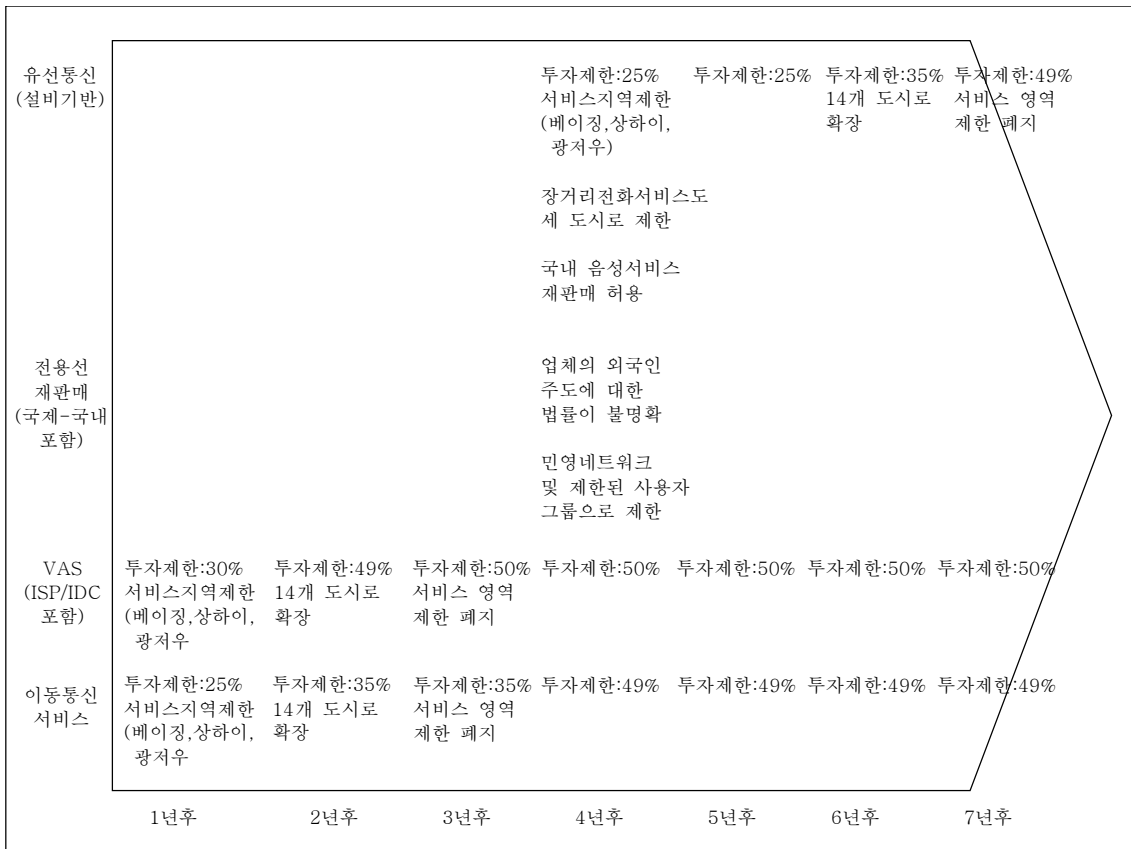
2. 중국 외부에 미치는 영향

WTO와의 협약에 따라, 중국은 대외 무역의 문을 넓게 열게 될 것이며, 외국투자기업(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FIEs)은 중국의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과 동등한 경쟁 기회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 역시 세계의 경쟁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가. WTO 가입에 따른 기회 및 장애요인 분석

중국 정부는 중국 IT 기업 육성을 산업발전 정책의 기본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기는 하지만 일부 고부가가치 분야를 제외하면 중국의 IT 산업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외국 업체들의 중국 내 직접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자료>: Gartner Dataquest 자료 재구성, 2001. 10.

- 유선통신서비스: 4년 후, 25%의 지분을 허용하며 7년 후가 되어서야 49%의 지분을 허용하게 된다.
- VAS(Value-Added Services): 첫해부터 30%의 투자가 허용되며 3년 후부터 50%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이동통신서비스: 첫해부터 25%의 투자가 허용되고, 4년 후부터는 49%까지 가능하게 된다.
- 전용선 재판매: 민간 전용선의 재판매가 4년 후부터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수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림 3) WTO 가입 이후 해외 투자자의 중국 통신업체 투자 허용단계

경제 개혁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해외 경제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입은 다음의 몇몇 분야에서 두드러진 기회요인을 몰고 올 것으로 분석된다[10].

1)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

중국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 포함된 무역(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조항을 곧바로 적용시키기로 동의했다. 또한 중국은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이나 투자의 형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전하도록 요구 받아 왔으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도 철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업체들은 자사의 기술을 중국에서 활용하는 데 더욱 자유스러운 환경을 보장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업체에 무역과 유통의 권한을 부여

중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무역 및 유통 서비스 제공 권리에 대해 제한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국 업체들은 중국 내의 파트너를 통한 무역거래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WTO와의 협약으로, 중국은 모

든 중국 업체 및 외국 업체들의 무역이 허가되었으며 자체의 유통망을 보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3)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제의 축소 및 제거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IT 제품에 대해 약 1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정보기술협약(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2003년까지 종전 관세의 2/3를 축소하게 되며, 2005년 1월에는 남은 1/3의 부분도 제거해야 한다.

4) 공정경쟁을 지원

불공정한 무역 거래 관계의 정리는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기존의 방식과 달리 외국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제품을 내어 놓기 위해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중국의 국영기업들도 중앙 정부의 간섭과 보호에서 벗어나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이는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중국 업체들이 특별대우를 받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WTO 협약 하에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업체 및 외국 업체가 동일하게 WTO의 반덤핑 조항의 적용 및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도 존재하게 될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여러 조항을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은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의 경제 정책결정은 철저하게 분권화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업체들은 관세 인하 및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 각각의 지방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합의된 내용들 중 일부는 중국 정부가 다소간의 위험부담을 갖게 만든다. 예를 들면, 관세 인하는 수입을 증가시켜 중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발생시

킬 소지가 있으며,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도시 지역의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인 불안정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WTO 회원국이 되면 무역 및 투자 제한을 모두 철폐할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WTO와의 협약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개선 및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 시장에서의 투자환경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와 중국 내 산업이 WTO와의 협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외국 투자 업체들의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으로 예상되고 있는 강도 높은 경쟁을 조심스럽게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나. 우리나라의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 일본과 함께 3대 교역상대국의 위치에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11].

1) 중국의 IT 시장 개방

중국의 IT 시장에서 통신설비업종은 제한업종으로, 통신서비스는 금지업종으로 규정하여 각종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동통신분야와 인터넷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도 지분제한을 비롯한 각종의 규제조항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WTO 가입 후, 유무선통신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49%까지 외국자본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고 부가가치통신의 경우는 50%까지 외국자본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정보통신기기 분야에 존재하던 고율의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기관련 수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경제적 효과

WTO 가입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은 관세율 인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14.8%인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2005년까지 8.9%로 하락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협정(ITA)에 따라 현재 평균 22%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정보통신 제품에 대해서 2005년까지 무관세화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내 IT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IT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그 동안 국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의 대중국 수출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또 다른 비관세장벽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 관세 인하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상당 부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T 관세 인하로 몰려드는 주요 선진국의 IT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IT 산업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입의 경우에는 대 중국 수출 증가에서 파생하는 수출용 IT 부품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핵심제품에 대한 수입 증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IT 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지분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제한도 철폐함에 따라 외국 통신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통신 서비스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자본과 기술면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선진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통신기기 시장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희망을 걸고 있는 분야이며, 특히 중국에서 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시스템 분야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제1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12], 연평균성장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CDMA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져 가고,

결국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 중국 수출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제품이 아닌 일부 품목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 통신기기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중국의 IT 산업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단순한 한 국가와의 관계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IT 분야를 포함한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확대 개방하고 있고, 중국 내의 수요가 더욱 팽창하고 있는 이러한 기회를 유리한 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중국 및 세계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 확보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중국 IT 환경변화에 따른 외국 기업의 고려사항

중국시장은 분명 거대하고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중국 시장의 성장 장애 요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여전히 중산층 이하이며, 부유한 동부 해안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는 대부분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다)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격차는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어 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유선전화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로 추산되어 미국 시장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로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제로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이익을 얻어내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정리된 중국과 WTO 간의 협정서는 비교적 기본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각각의 지방 정부와의 관계 등 일부 세세한 사항에서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하부구조를 주의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는 있다 할지라도, 중국 경제는 아직 완전한 하부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또한 만약 중국의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사회주의 제도 하에 있는 중국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시장 경제의 모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9].

III. 결 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이후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IT 산업의 발전은 발전 방향을 함께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올라설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제 10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China's 10th Five-Year Plan: 2001~2005)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7%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반 투자 은행들은 2001~2002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7.3%에서 8.5%까지 전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목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총 교역량을 중국 정부는 6,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품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목표를 내어 놓고 있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 유치 성공은 향후 2007년까지 중국경제를 매년 3%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 면에서 보면, 올림픽이 개최될 2008년에 한-중 교역량이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유치 성공과 더불어 최근 세계 1위의 시장규모를 보이기 시작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IT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

자의지 및 한류 등의 요인 환경은 중국경제에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http://www.etimesi.com>)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올림픽 개최는 우리나라, 특히 첨단 디지털 설비 및 통신장비 산업의 활기를 되찾게 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韓流)열풍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한류열풍의 진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향한 중국 국민의 이념적, 민족적 반감 등의 요인은 우리에게 더욱 큰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한류열풍은 특히 섬유 및 패션(의류, 화장품 등) 분야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발 빠른 기업들은 이미 한류열풍을 몰고 온 연예인을 앞세우는, 한류열풍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그 효과를 검증 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야 외에도 PC 및 전자제품 등 소비재 분야와, 가입자 규모 면에서 세계 1위 수준에 올라서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시장에서도 이러한 한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3].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한 효과는 시장개방,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수출 돌파구이자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시장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시켜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나 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남아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중국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조치로 주요 선진국 제품의 중국시장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가격인하 경쟁이 격화되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중국의 소비재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유통기반이 미약한 상태이고 수출품목 구조가 일부에 국한되는 취약성을 보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개방과 첨단기술 흡수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중국 IT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시장경쟁이 확대되고, 한국시장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IT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IT 산업 수출품목 구조를 첨단기술 제품으로 신속히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력 향상과 현지영업, 마케팅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IT 기업과의 합작, 제휴관계를 확대하고 수평적, 수직적 분업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중국에 대한 단독 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홍콩 등의 화교자본과의 협력도 고려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IT 산업발전에 대한 치밀한 조사분석과 중국시장 전문가를 양성해 중국 내 전문가나 산업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며 진출이 가능한 전략 종목을 선별하여 지역별/계층별로 세분화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또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의 발전 잠재력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류 현상을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 [1] “2001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World Report 5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2. 1.
- [2] 은오성 외 2인,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 方向,” 한은조사연구 2001-10호, 한국은행, 2001. 9.
- [3] 2001년 7월 18일자 주요 일간지
- [4] “China IT Service Market Overview,” IDC, 2001. 7.
- [5] “China IT Market Overview, 2000~2005,” IDC, 2001. 4.
- [6]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 타결,” 주간해외 경제 제 2001-38호, 2001. 9.
- [7]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 11.
- [8] Bing Zhang, “Assessing the WTO Agreements on China’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Reform and Industrial Liberaliz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2002. 4.
- [9] “China After WTO: The First Uncertain Steps,” Gartner Dataquest, 2001. 11.
- [10] N. Ingelbrecht, B. Bidaud, and K. Foong, “Mobile Opportunities in China,” Gartner Group, 2001. 11.
- [11] “중국 IT 산업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 12.
- [12] “Top 20 Mobile Service Operators Worldwide, 2000,” Gartner Dataquest, 2001. 3.
- [13] 정현수, “중국의 IT 산업 현황 및 전망,” 통신동향 9월호, 2001. 9.